

부활의 은총은 ‘흠 없고 티 없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처럼 수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음의 나라를 벗어난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신앙인의 커다란 특징은 죽음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성덕에 올라간 성인일수록 죽기를 더 바란다고 합니다.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2017년 4월 30일 부활 제3주일, 주일 복음 말씀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13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18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군요.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느냐?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29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30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34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주임신부 이야기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공지의 주임 신부 이야기를 쓰고 있네요. 4월부터 공지 작성에 사실 큰 변화가 있었지요? 하모니 회장이 공지를 매주 썼었는데 이번 달 5일부터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무가 돌아가면서 한 주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회장이 공지를 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임원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하모니입니다. 임원진이 소명감을 가지고 공지 작성에 함께 해주니 주임신부로서 진심 감사합니다. 매주 공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런 수고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모니 모임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된다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지 작성

을 위해 애쓰는 하모니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사목회 '홍보분과' 모임에서 하모니 공지 내용이 알차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이 하느님 사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공동체 사이트에 별도로 게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지가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얼굴이 되어 가고 있음을 함께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공지 작성이 단순 소식이 아니라 하모니와 모든 청년들에게 알찬 소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끝으로 공지가 길어지면 다 읽기가 부담스럽겠지만, 하모니 임원진의 봉사에 감사하며 꼭 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무언가 매우 특별하게 말하고 싶어 할 때, "애플파이 같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을 부를 때 "가장 큰 사과"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사과는 매우 미국적이며, 매우 특별합니다. 사과를 이렇게 특별한 과일로 만든 배경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74년에 태어난 존 채프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미국의 개척시대에 많은 지역을 돌며 사과 씨를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이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무 대가 없이 평생을 사과를 보급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내일은 누군가가 그 그늘에서 쉬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하나 내줌으로써 내 주변이,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 마하트마 간디 -**

---

## 2017년도 4월 넷째주 공지입니다.

### <지난행사>

#### 안나/요아킴회 점심 서빙 및 설거지 봉사

23일 주일 교중 미사 후 안나회/요아킴회에서 전신자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점심서빙 및 뒷정리/설거지 봉사를 도와주신 하모니/뜨락회 형제 자매님 감사합니다!

#### 주보 나눔 봉사 - 4/23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 4/27 목

매달 네번째 목요일 오후 4시에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4/27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 주보 나눔 봉사 - 4/30

매 주일 교중미사 전에 주보나눔 봉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가능한 날로,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오전 10:30 부터 성당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와 뜨락회에서 각 1명씩 성당 정문 입구와 친교실 입구에서 봉사합니다.

먼저오는 봉사자가 성당 정문 입구에서, 나중에 도착한 봉사자가 친교실 입구에서 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30일 봉사 - 전진영 베로니카. 감사합니다!**

## 영어미사 - 4/30

하모니, 프락회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두번째 영어미사가 마지막 주일 (4/30)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영어 미사때는 영어 이름표를 부착해주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1시 미사 보다는 4시 미사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Rice Bowl 회수 - 4/30 까지

Rice Bowl을 4/30까지 성당 입구에서 회수 합니다.

## 심승화 헬레나 자매님 저녁 식사 - 5/13(토요일)

헬레나 자매님께서 하모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시길 예정입니다. 정성스럽게 마련되는 식사 자리인 만큼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 사랑방

시간: 오후 6시

## 하모니 새 이름표

'하모니'를 포함한 새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표는 성당에 있는 동안 계속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 부활시기(4/16-6/4)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다'양식으로 합니다.

'다'양식: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부활시기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시기로 예수 부활 대축일(4/16) 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6/4)까지 50일간 계속 됩니다.\*\*

##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